

##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탈북청소년교육 연구동향

박혜랑(성균관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 <국문 초록>

2000년대부터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면서 탈북청소년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재학 탈북 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시스템은 많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마련에 앞서 여러 기존 정책의 효과성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고, 연도별, 주제별, 연구방법에 따라 탈북청소년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다. 연도별 탈북청소년 교육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7년으로 갈수록 대체로 연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별로는 학교와 학습 관련 논문의 수가 각각 33편(32.35%), 30편(29.41%)으로 전체 연구주제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가 75건(73.5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동향 분석결과,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는 최근에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일을 준비하는 현실에서는 연구의 수가 많지 않았다. 연구주제는 학교와 학습관련 주제에,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에 편중되어 있었다. 통일을 준비하는 현재 더 많은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가 요구되며,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학업 증진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관련 세부주제의 학술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독교교육 차원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적응과 학업성취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 I. 서론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공동 발표한 이후,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KBS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2018 국민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에 대해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25.3%p)하여 41.8%로 가장 높았으며,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비율은 전년대비 25.0%p 감소하여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에 대해서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가 20.4%,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가 45.6%로 긍정응답이 66.0% 차지하였으며,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가 25.1%,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가 8.9%로 유보/부정 응답이 34.0%를 차지하여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기대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통일에 대한 국가적 준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통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대부터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 청소년의 수도 증가하면서 탈북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수는 2010년 1,417명, 2012년 1,992명, 2014년 2,183명, 2016년 2,517명(교육부 보도자료, 2017.3.24.)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통일을 위한 준비의 시작으로 '먼저 온 미래인 탈북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연구 수행과 이들을 위한 정책마련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재학 탈북 청소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시스템은 많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탈북청소년은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학업공백과 기초학력 부족, 남북한 언어 및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남한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학습 및 학업수행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탈북학생의 수와 더불어 탈북학생 재학학교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위한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정책 마련에 앞서 여러 기존 정책의 효과성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된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II. 선행연구

### 1. 다문화교육 연구 동향

최충욱, 조인제(2010)는 1984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 발간된 다문화교육관련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정책연구, 학술연구, 현장연구로 구분하여 다문화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김민환(2010)은 1995년부터 2009년 전반기까지의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연도 및 주제별로 분석하여 다문화교육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 2. 북한연구,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북한연구동향을 분석한 정은미(2005)는 북한연구 주제 동향에 대해서 90년대 초반에는 소련의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북한사회의 의식변화, 90년대 중반은 북한의 식량난 실태파악에서 2000년대에는 급증하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와 더불어 탈북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를 ‘실태보고형’, ‘부분확인형’, ‘분석형’, ‘구술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윤혜순(2014)은 등재 및 등재후보지 탈북청소년 관련 논문 106편을 분석하여 탈북청소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연구는 200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보고했다.

허지숙 외(2017)의 북한관련 교육분야 연구동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연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탈북청소년의 경우 통일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있으므로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3. 소외계층 연구동향

남일균 외(2017)은 저소득, 다문화, 탈북 등의 소외계층 대상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을 문헌조사와 언어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84년-2017년 2월 발간된 소외계층 과학교육관련 학술지논문 125편과 학위논문 127편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연구가 61%로 비중이 가장 높고 탈북학생 관련 연구는 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방법(58%)이 많이 사용되었다.

## I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첫째, 2007-2017년 11년간 KCI등재지 및 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고

둘째, 연도별, 주제별, 연구방법에 따라 탈북청소년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교육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KCI등재지 및 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집을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탈북 청소년”, “탈북 학생”, “탈북 대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 학생”, “북한이탈 대학생”, “새터민 청소년”, “새터민 학생”, “새터민 대학생” 키워드로 검색하여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학위논문, 단행본, 및 보고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논문은 228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관련 논문 102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 연도

연도별 탈북청소년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7년으로 갈수록 대체로 연구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이 20건(19.61%)으로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2017년 19건(18.63%), 2014년 15건(14.71%), 2015년 12건(11.76%) 순이었다.

〈표1〉 연도별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논문 수

연도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논문 수	백분율(%)
2007	2	1.96
2008	2	1.96
2009	3	2.94
2010	9	8.82
2011	3	2.94
2012	7	6.86
2013	10	9.80
2014	15	14.71
2015	12	11.76
2016	20	19.61
2017	19	18.63
합계	102	100.00

## 2. 연구 주제

다음 <표2>에는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연구가 연도별·12개 주제별로 제시되었다. <표2>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의 교육연구는 학교와 학습이 각각 33편(32.35%), 30편(29.41%)으로 전체 연구주제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교사와 진로영역이 각각 6편(5.88%)이었으며, 교육실태 및 현황영역이 5편(4.90%), 교육정책 및 법령, 기독교 교육, 대안학교영역이 각각 4편(3.92%),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및 분석, 남북 교육 비교, 기타영역이 각각 3편(2.94%), 이론, 개념, 방향 및 방안제시영역이 1편(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연구주제별 논문 현황

주제	연도											합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편수	백분율(%)
	교사				1				4	1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및 분석						1			1	1		3	2.94
교육실태 및 현황 분석				1		1		1	1		1	5	4.90
교육정책 및 법령						1		2			1	4	3.92
기독교교육			1		1					2		4	3.92
남북 교육 비교							1	1		1		3	2.94
대안학교						1	1		1		1	4	3.92
이론, 개념, 방향 및 방안제시											1	1	0.98
진로	1			1	1				1		2	6	5.88
학교	1	2	2	4	1		2	3	3	7	8	33	32.35
학습				1		3	6	4	4	7	5	30	29.41
기타				1						2		3	2.94
합계	2	2	3	9	3	7	10	15	12	20	19	102	100.00

탈북청소년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수행된 학교영역에서는 장문강(2008), 이수연(2008), 김애진·정원철(2011) 등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 논문이 20편(60.61%)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이은혜(2017), 이문숙(2017), 정진주 외(2016) 등 학교교육경험 관련 논문은 4편(12.12%), 학교교육(3편, 9.09%), 학교생활경험(2편, 6.06%), 학교중도탈락(2편, 6.06%) 등에 대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학교영역에서의 연구는 2016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07년 이후 대체로 연구수행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학교영역 세부주제별 논문 현황

학교영역 세부주제	편수	백분율
운영실태분석	1	3.03
학교교육	3	9.09
학교교육경험	4	12.12
학교생활경험	2	6.06
학교적응	20	60.61
학교중도탈락	2	6.06
학교폭력 인식	1	3.03
총합계	33	100.00

학습영역은 과목별 학습태도, 학습양상, 학습태도 등에 대한 연구와 과목별, 집단별 학업성취를 비교한 논문이 주를 이뤘다. 과목별 학습연구는 영어과목이 8편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수학과목이 5편, 국어과목, 과학 과목 연구는 각각 2편씩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과목별 연구로는 수학과목 이 3편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국어, 수학, 사회과목의 학업성취도 연구논문은 각각 1편인 것으로 나타났 다. 과목별 학업성취도연구(김현경, 2014; 이정우, 2013; 조윤동 외, 2013a; 조윤동 외, 2013b; 김영란, 2013)는 대부분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실시된 2011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었 다. 학습영역의 연구 논문은 2016년(7편)에 가장 많았으며, 2012년 이후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표4〉 학습영역 세부주제별 논문 현황

학습영역 세부주제		편수	백분율(%)
학습 일반	과학 학습	2	63.33
	국어 학습	2	
	수학 학습	5	
	영어 학습	8	
	학습경험	2	
학업성취	과학 학업성취	1	23.33
	국어 학업성취	1	
	사회 학업성취	1	
	수학 학업성취	3	
	학업성취 향상방안	1	
쓰기 태도 및 쓰기 양상		2	6.67
학업중단요인		1	3.33
학업태도		1	3.33
합계		30	100.00

탈북청소년교육 관련으로 교사영역 연구는 총 6건으로, 윤석주(2015), 윤석주·손지희(2015)가 대안학교 교사 의 소진에 대한 연구(2건)를 수행하였으며,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연구가 1건, 탈북학생 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 1건, 탈북학생 교수 경험에 대한 연구가 1건, 예비과학교사의 학습자중심 사고발달에 대한 연구가 1 건 수행되었다.

〈표5〉 교사영역 세부주제별 논문 현황

교사영역 세부주제	편수	백분율(%)
교사 소진	2	33.33
실천적 지식	1	16.67
교사의 역할	1	16.67
교사의 학습자 중심 사고발달	1	16.67
교사의 탈북학생 교수 경험	1	16.67
합계	6	100.00

탈북청소년의 진로관련 연구는 총 6건으로 진로탐색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신영·임미영, 2017), 남한학생과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을 비교 분석한 연구(허은영·강혜영, 2007), 진로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박슬가오인수, 2011) 등 수행되었다.

〈표6〉 진로영역 세부주제별 논문 현황

진로영역 세부주제	편수	백분율(%)
진로탐색	1	16.67
진로결정	1	16.67
진로코칭	1	16.67
진로성숙도, 진로자기효능감	1	16.67
진로교육 현황 및 방향 모색	1	16.67
진로프로그램	1	16.67
합계	6	100.00

교육실태 및 현황분석연구는 총 5편으로 교육, 학습 실태에 대한 연구 4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유미·이소영(2012)과 정채관·김소연(2015)은 탈북청소년의 영어학습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교육실태(2건)와 관련하여 김현정·박선화(2017)는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프로그램 실태를, 김윤나(2014)는 교육기회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7〉 교육실태 및 현황분석영역 세부주제별 논문 현황

교육실태 및 현황분석 세부주제	편수	백분율(%)
영어학습실태	2	40.00
교육 실태	2	40.00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1	20.00
	5	100.00

교육정책 및 법령에 대한 논문은 총 4편으로 탈북청소년 교육정책, 교육지원 정책/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기독교교육에 대한 논문은 기독교교육 관점에서의 교사의 역량과 교육 방안 모색 등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영역에서는 통합교육과 대안학교 운영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이 총 4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및 분석영역, 기타영역(평생교육, 특수교육, 문화예술교육)과 남북 교육비교 영역은 각각 3편의 연구 논문이 게재 되었으며, 이론, 개념, 방향 및 방안제시 영역의 논문은 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방법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크게 질적연구, 양적연구, 혼합연구로 나뉘어진다. 질적연구는 다시 개발연구, 관찰연구, 면담연구, 문헌연구, 비교연구, 양적연구는 실험연구, 이차자료분석연구, 조사연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혼합연구는 2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이 사용된 경우로 정의하여 구분하였다.

〈표8〉을 살펴보면,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가 75건(7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적연구방법으로 수행된 연구가 23건(22.55%), 혼합연구방법으로 진행된 연구가 4건(3.92%)으로,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이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월등히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방법에서 면담연구방법이 44건(43.14%)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양적연구방법에서는 조사연구가 16건(22.55%)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혼합연구방법은 ‘조사연구+면접연구’가 2건 수행되었으며, ‘문헌연구+면담연구’, ‘조사연구+실험연구’가 각각 1건씩 수행되었다.

〈표8〉 연도별 연구방법 동향

연구방법		연도												합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편수	백분율(%)	
질적 연구	개발연구						1			1	1	1	4	3.92	73.53
	관찰연구						2			1	1	3	7	6.86	
	면담연구		2		4	2	2	1	7	7	10	9	44	43.14	
	문헌연구	1		1	2	1	1	1	2	1	2	3	15	14.71	
	비교연구								1	2		2		5	
계		1	2	1	6	3	6	3	11	10	16	16	75	73.53	
양적 연구	실험연구				1								1	0.98	22.55
	이차자료 분석연구							4	1			1	6	5.88	
	조사연구	1		2	2			3	3	1	3	1	16	15.69	
계		1	0	2	3	0	0	7	4	1	3	2	23	22.55	
혼합연구							1			1	1	1	4	3.92	3.92
합계		2	2	3	9	3	7	10	15	12	20	19	102	100.00	

〈표9〉에 정리된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연구주제에서 질적연구방법이 사용되는 반면, 양적연구방법의 경우 ‘교사’, ‘진로’, ‘학교’, ‘학습’에서만 사용되었다.

〈표9〉 연구주제별 사용된 연구방법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도											합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교사	면담연구				1				3	1			5
	조사연구							1					1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및 분석	개발연구						1			1	1		3
교육실태 및 현황 분석	면담연구						1		1	1		1	4
	문헌연구				1								1
교육정책 및 법령	문헌연구						1		2			1	4
기독교교육	면담연구										1		1
	문헌연구			1		1					1		3
기타	면담연구				1						1		2
	비교연구										1		1
남북 교육 비교	비교연구							1	1		1		3
대안학교	면담연구											1	1
	문헌연구							1		1			2
	혼합연구						1						1
이론, 개념, 방향 및 방안제시	문헌연구											1	1
진로	면담연구					1				1		1	3
	실험연구				1								1
	조사연구	1										1	2
학교	개발연구											1	1
	면담연구		2		1	1		1	2	2	5	5	19
	문헌연구	1			1						1	1	4
	비교연구								1				1
	이차자료분석연구											1	1
	조사연구			2	2			1		1	1		7
학습영역	관찰연구						2			1	1	3	7
	면담연구				1		1		1	2	3	1	9
	이차자료분석연구							4	1				5
	조사연구							2	2		2		6
	혼합연구									1	1	1	3
합계		2	2	3	9	3	7	10	15	12	20	19	102

## V. 결론

본 연구는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KCI등재지 및 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논문의 탈북청소년 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별로 살펴본 탈북청소년교육 연구동향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연구는 2007년에는 2건을 시작하여 2017년 19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현실에서 진행 연구의 수는 많지 않았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의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을 위한 교육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에 비해 많지 않은 양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현시대의 교육 소외계층이자 미래의 통일 주역인 탈북청소년의 학업증진과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탈북청소년교육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청소년교육 분야의 연구주제는 학교와 학습관련 주제에 치우쳐있다. 학교와 학습관련 연구가 63건으로 전체 수행연구의 61.76%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청소년교육 관련 연구주제는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있는 학교적응과 학습에 편중되어 있으며, 교육실태, 교육정책, 교사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위한 교수,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에 의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청소년은 남한의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적지 않은 탈북청소년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다(윤석주, 2015). 현재 탈북청소년은 3,102명으로 그 중 약 18%인 564명의 적지 않은 수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통일부 보도자료, 2018.3.6.)하고 있지만, 최근 11년간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는 4건밖에 수행되지 않았다. 탈북청소년들 적응과 학업을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과목별 학습과 학업성취도 연구의 경우, 많지는 않았지만 주요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예체능 과목의 학습과 학업성취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없어서 다양한 과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탈북청소년교육 분야 연구는 질적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질적연구가 75건으로 전체 연구의 76.53%를 차지한다. 질적연구는 사회현상이나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론을 일반화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실제로 면담연구의 경우 1명의 경험에 기반한 내러티브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의 일반화를 위해 양적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또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연구자 개인이 수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2011년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도까지만 수행되고 종료되었다. 연구자들의 연구참여와 연구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자료의 확보가 요구되며 해당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 용이성을 보장하여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교육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독교 차원에서 진행된 탈북청소년 교육 관련 연구는 단 4건으로 많이 부족하다.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 대상으로 설립된 기독교 기반의 대안학교들이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이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일시대 남북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교 차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수-학습법 등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심도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하나재단(2016)의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종교는 기독교가 35.9%로 무교(58.3%) 다음으로 높았으며, 천주교는 2.5%, 불교는 1.5%였다.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탈북청소년들과 밀접한 만큼 기독교교육 차원에서도 남북통합의 주역인 탈북청소년들의 적응과 학업성취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2017.3.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 김민환(2010).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61-86.
- 김애진·정원철(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차이와 차이를 넘어 융화 되기”. 학교사회복지, (21), 217-242.
- 김영란(2013). 탈북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분석-2011년 초6, 중3, 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96, 197-227.
- 김윤나(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기회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24), 101-131.
- 김현경(2014).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과학 학업성취도 특성 및 화학 문항 분석”. 『대한화학지』, 58(3), 303-312.
- 김현정·박선화(2017).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 분석”. 『동북아연구』, 32(1), 113-148.
- 남북하나재단(2016). 2016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남일균·이상원·임성민(2017). “소외계층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한국과학교육 학회지』, 37(6), 921-935.
- 박슬기·오인수(2011). “대안학교 출신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 진로결정과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2(5), 1719-1735.
- 신영·임미영(2017). “간호사를 꿈꾸는 탈북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교육인류학 연구』, 20(1), 59-97.
- 양유미·이소영(2012). “정규중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영어학습 실태 분석”, 『외국학연구』, (19), 59-78.
- 윤석주(2015).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교사의 소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315-344.
- 윤석주·손지희(2015). “북한이탈청소년학교 교사의 소진실태와 요인”. 교육문제연구, 54, 109-134.
- 윤혜순(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이문숙(2017).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의 on-line\_대학교에서의 교육경험과 그들의 필요”. 『한국과학예술포럼』, 29, 235-246.
- 이수연(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은혜(2017). “한 탈북청소년의 학교교육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20(4), 191-226.
- 이정우(2013). 탈북 중학생 사회과 학업성취도 분석: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1), 43-79.
- 장문강(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19), 195-234.
- 정은미(2005). “북한연구방법으로서 탈북자 조사의 활용과 연구 동향”. 『현대북한연구』, 8(3), 139-176.
- 정진주·손다정·김호선·홍원표(2016). “탈북 학생들의 고등학교와 그 이후 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26(5), 65-91.
- 정채관·김소연(2015).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청소년의 영어학습 실태연구”. 『외국학연구』, (32), 65-88.
- 조윤동·강은주·고호경(2013a). 2011년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나타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성취 특성 분석. 학교수학, 15(1), 179-199.

- 조윤동·강은주·고호경(2013b). “수학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차별기능분향 분석”. 『수학교육학연구』, 23(2), 75-94.
- 최충욱·조인제 (2010). “다문화교육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다문화교육』, 1(1), 1-20.
- 통일부 보도자료(2018.3.6.). 탈북 청소년 대안 학교 부지 확보 쉬워진다.
- 허은영·강혜영(2010).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23(4), 39-55.
- 허지숙·이성엽·한혜영·오경수·정현주(2017). “북한관련 교육 분야 연구의 시대별 동향 분석 과 과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0(4), 1-26.
- KBS 방송문화연구소(2018).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 KBS 남북교류협력단.